

성경에서 찾아본 소두무족(小頭無足)의 정체

성경의 올바른 이해

격암유록에는 소두무족이 “나를 죽이는 존재”라고 아래와 같이 표현되어 있다.(격암유록 말운론)

活我者誰(활아자수) 三人一夕(삼인일석) 殺我者誰(살아자수) 小頭無足(소두무족)

(해설) 나를 살리는 자는 누구인가 삼인일석, 나를 죽이는 자는 누구인가 머리는 작고 발이 없다.

三人一夕(삼인일석)은 닻을 수(修)자의 파자(破字)이다. 나를 살리는 방안은 수도를 해야 한다고 한다. 육체적인 운동이 아닌 정신수양을 의미하는 것이라라 그러나 나를 죽이는 것은 머리는 작고 발이 없는 존재라 하였는데 꼭 집어서 그 정체를 밝히는 것 역시 사람의 경지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불가(佛家)에는 “무아(無我)의 경지에 이르러야 도통한다”는 말이 있다. 풀이하면 “내가 없어져야 도통(道通)하게 된다”는 뜻이다. 도통한다는 것은 불가의 성불(成佛)하였다는 내용과 일치되는 표현이다. 성불(成佛)은 부처님이 되었다는 것이다. 불경에서는 부처님이라 하지만 성경에서는 동일 존재를 하나님이라 한다. 즉 내가 없어져야 성불한다는 뜻이며 바로 그렇게 되어야 하나님이 된다는 풀이로 이어지게 된다.

다음에 인용되는 성경을 보도록 하자.
(요3:5)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본 구절의 의미는 사람이 원래는 하나님이였었는데 지금은 인간이 되어 있지만 다시 하나님이 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의미이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다.

결국 소두무족이라는 단어가 품고 있는 뜻은 삶과 죽음의 문제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성경은 성경을 상고(詳考)하는 목적을 영생(永生)을 얻는 데 있다고 주장(요5:39)하고 있다. 우선 생명을 죽인다고 기록된 성경 내용을 모아보도록 한다. 아래를 보도록 하자.

(롬5:12)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롬6:23) 죄의 삯은 사망이라.

(약1:15)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욕심=죄=사망).

(히2:14) 사망권세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하시며.

방금 인용된 내용들은 사람이 죽는 것은 죄(罪)로 인함이고 그러한 사망권세를 잡고 있는 자는 곧 마귀라고 명시해 놓았으니 결국 우리나라 예언서인 격암유록에서 “나를 죽이는 자는 누구인가?”라고 격암유록에서 제기된 물음에 대한 해답을 마귀(魔鬼)라고 성경이 제공한 셈이다.

마귀로 표현된 글자 중 귀(鬼)라는 글자를 보면 전(田)자 위에 조그만 머리가 붙어

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다리가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다. 이 귀신(鬼)에서 다리를 떼내어 버리면 남은 글자가 소두무족(小頭無足)의 형태가 되는데 옥편에서 찾아 보니 ‘귀신머리 불(由)자’로서 딱 소두무족의 형상에 틀림없어 보인다.

주역에는 크기승자(克己勝者)는 천하승자(天下勝者)라는 글귀가 있다고 한다. 그 뜻은 “나를 극복하고 이긴 자는 천하를 이긴 자이다”라는 의미로서 사망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 가운데 가장 강한 마귀가 자신이라는 풀이가 된다. 그러므로 자신(己)이 바로 귀신머리 불(由)자로 표현되는 귀신대장이 된다는 것이다.

귀신 귀(鬼) → 귀신머리 불(由)

또한 살아있는 사람의 몸속에는 최초의 조상으로부터 자신에게 전해져 온 모든 조상의 피가 들어 있으므로 살아 있는 사람을 향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라는 누군가의 말처럼 살아 있는 사람의 몸은 모든 죽은 조상들의 영이 우글거리는 귀신단지에 다름 아니다. 그러므로 ‘나’라는 주체의식은 그러한 죽은 영들의 대장 즉 귀신대장이 되는 건 당연하다.

아래에 인용되는 성경구절도 자신 속에 있는 귀신대장을 없애버리면 즉 순교(殉教)시키면 하나님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이치를 알려 주고 있다.

(사7:14~15)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저가 악(惡)을 버리고 선(善)을 택할 때에 미쳐 빠터와 꿀을 먹을 것이다.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함께하심’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처녀에게 잉태된 아들은 ‘육신의 자녀’가 아닌 성령 잉태된 존재라는 것이다. 그리고 ‘빠터와 꿀을 먹는’다는 것은 악을 버려야만 얻게 되는 결과임을 알려주고 있으며

그 뜻은 처녀가 낳은 아들이 자신 속에 존재하는 마귀의 영인 ‘악(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인 ‘선(양심)’을 택함으로써 천국으로 상징된 ‘젓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에 입성하게 되는 이치를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임마누엘이 사람의 육체를 입은 상태에서 사망의 영인 ‘나’라는 ‘주체의식’을 버리고(순교시키고) 하나님으로 거듭나서 구세주 위(位)에 등극하게 됨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은 전부 죄인이므로 언젠가는 죽지 않으면 안되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참 구세주 동방의인의 말씀인 “살았을 때 선악과를 제거한다면 죽음의 원인을 제거한 것이 되므로 육신이 죽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악과를 제거하는 것이 죽음을 제거하는 방법이고 구원의 방법이고 하나님이 되는 방법인 것이다”는 내용과 같이

사람이 구원이 되려면 즉 영생을 얻으려면 자신 속에 존재하는 사망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대장이자 선악과가 되는 ‘나’라는 주체의식’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 일은 구세주가 아니면 아무도 해 줄 수가 없으므로 참 구세주 되시는 동방의인을 찾아 와야 된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결론적으로 민족의 대 예언서인 격암유록에서 ‘나’를 죽이는 존재로 명시된 소두무족(小頭無足)의 정체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으며 그것이 바로 사람 속에 숨어 있는 선악과인 ‘나’라는 주체의식’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동양철학인 주역(周易)에서 크기승자(克己勝者)는 천하승자(天下勝者)라는 내용이 그것을 단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여겨진다.*

승사 정수윤

이것이아말로 효도 중의 효도다

몸이 바로 생명이고 영혼인 고로 인간의 육체가 죽으면 생명이 죽는 것이다. 그런데 한 인간의 생명이 죽을 때 그 몸은 죽지만 그의 피가 그 후손 속에도 있으므로 그 후손 속에 자신의 영혼이 있는 것이다.

죽은 조상들의 영혼이 바로 살아있는 후손 속에 있다. 즉 죽은 자의 내세가 바로 살아 있는 사람의 현세인 것이다. 영혼이 어디 다른 곳에 간 것이 아니다. 후손 속에 죽은 자의 영혼이 모두 들어 있다.

그러므로 후손이 잘되면 조상이 잘되는 것이다. 후손이 잘 먹으면 조상이 잘 먹는다가 되는 것이다. 죽은 조상의 제사를 따로 지낼 필요 없이 살아 있는 후손이 잘 먹으면 되는 것이다.

예수가 살아있는 사람더러 ‘회칠한 무덤과 같은 인생들아!’라고 말한 것은 살아있는 사람 속에 죽은 사람들의 영들이 득실거리므로 무덤이라고 한 것이다.

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죽은 사람들의 귀신 몸치이다. 그 귀신들이 이끄는 대로 움직이는 경우도 많은 것이다. 내가 죄를 벗고 의인이 되면 죽은 조상들도 다 구원인 것이다. 내 속의 피 속에 조상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하나님이 되기만 하면 그들도 모두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불경에도 이런 구절이 있는 것이다. ‘본래 마음 되찾아 이 내 마음 부처되면 조상 천도 절로 되니 산 사람도 죽은 사람도 모두가 불국 세계에 드는 것을’

그러므로 내가 죄를 씻고 율회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죽은 조상들도 모두가 부처가 되니 이것이아말로 효도 중의 효도인 것이다.

1991년 4월 15일 말씀 _ 승리신문 180호

격암유록 新 해설
수정판 제 58회

머지않아 천하만국에서 하늘 양식을 구하러
은금보화와 만물을 싣고 오게 되리라

歌(二) 가사요

鑄鐵江山金銜路 (금수강산금가로)
西氣東來金運回 (서기동래금운회)
太古以後初仙境 (태고이후추仙境)
前無後無之中原鮮 (전무후무지중원선)
從鬼魔嘲笑盡 (종귀마조소진)
耳目聽見偶自然 (이목청견우자연)
遠邇千里運糧日 (원방천리운량일)
寶貨萬物自然來 (보화만물자연래)
豫言不遠朝鮮矣 (예언불원조선의)

우리나라 금수강산이 다 황금 길이 되며 금운을 따라 하나님의 기운을 가진 분이 동방에 온다. 금운이 돌아옴에 태고(太古)이후 처음으로 선경이 열리고 한국 조선이 전무후무한 세계의 중원국(中原國)이 되느니라. 마귀를 따르는 자들의 조소가 다하면 천리만리 머나먼 나라에서 하늘 양식을 구하러 자연히 은금보화와 만물을 싣고 오게 되는 것을 뜻 밖에 저절로 귀로 듣고 눈으로 볼 것이니라. 이 예언이 머지않아 한국에서 이루어지리라.

嘲笑歌 조소가

七星依側彼人天佑神助
(칠성의측편이천우신조)
人我嘲笑而稱受福萬
(인아조소이칭수복만)

嘲笑而不俱虛妄修道人
(조소이불구허망수도인)
勿慮世俗何望生 (물려세속허망생)
天通地通義通 (천통지통의통)
所經不調盲朗道通 (소경불알맹랑도통)
知覺我人義通知覺道人也
(지각이인분통지각도인야)
無聲無臭無現跡 (무성무취무현적)
何理見而狂信徒 (하리견이광신도)
愚者信去天堂人 (우자신거천당인)
今時滿員不入矣 (금시만원불입의)
終身愚人地獄 (종신우인지옥)
不信智人飛上天 (불신지인비상천)

부득칠성(생명을 주관하는 신 즉 정도령)을 의지하는 저 사람은 하나님이 도우리라. 사람들이 만복(萬福)을 받겠네 하며 나를 비꼬며 조소하기를 ‘병신 같은 허망한 수도인(修道人)’이라 하느니라. 사람들 이여, 세속의 일에 너무 마음 뺏기지 마라.

그래가지고서 어찌 살기를 바라겠느냐? 천문(天文)에 통하고 지리(地理)에 통했다고 큰소리쳐도 똥똥밖에 안 되나니 소경이 앞을 보지 못하듯이 경전을 읽어도 참 뜻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은 맹랑한 도통이 아니라.

나 자신과 사람들이 다 똥똥이라는 것을 깨달아 이는 사람이 참된 도인이니라. 소리로 뉘새도 자취도 없는 하나님을 어떤 이치로 보았다고 하는지 그렇게 믿는 자를 광신도(狂信徒)라 하느니라.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누구를 믿으면 천당 간다고 하는데 천당은 지금 만원(滿員)이라 들 어갈 수가 없나니 죽을 때까지 어리석은 사람이 갈 곳은 지옥 밖에는 없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을 믿지 않느니라.

總嗜禁欲無慈味 (절기금욕무자미)
草露人生可憐 (초로인생가련)

自古歷代詳見 (자고역대상견)
人間七十古來稀 (인간칠십고래희)
好遊歲月此今世 (호유세월차금세)
酒肆廳樓不離 (주사청루불리)
昨日人生今日死 (작일인생금일사)
今日人生來日死 (금일인생내일사)
場出入智人便所出入 (장출입지인변소출입)
道人不顧家事狂夫女 (도인부고가사광부녀)
一日三食何處生 (일일삼식허처생)
彼笑我我彼笑 (피소아아피소)
終結勝利誰人言 (종결승리승인언고)
恒時發言天堂我智覺 (항시발언천당아지각)
知地獄一平之修道人 (지지옥일평지도인)
北山山川不免時來 (북산천천불면시래)
心靈我人運去 (심령이인운거)
智知端彼人乙矢口節失口 (지지단편비인을시구절사구)
不遊好日何望生 (불유호일허망생)

즐거던 기호(嗜好)도 끊고 금욕(禁慾)을 하면 무슨 재미로 하느냐? 하는데 풀잎의 이슬 같은 초로인생(草露人生) 가련하도다. 고금(古今)의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자면 인간이 침실까지 살았던 일이 드물지 않았느냐? 놀기 좋은 세월인 지금 이 세상에 술파는 기생집을 떠나지 않는구나. 어제의 인생이 오늘 죽고 오늘의 인생이 내일 죽으니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하며 진탕만탕 마시며 노는 자들이 이런 술집에 출입하는 지식인은 변소 출입하는 도인이니라. 그런 술집을 출입하는 도인과 집안 일을 돌보지 않고 그릇된 종교에 빠져 미친 사내와 여자는 하루 세끼를 먹어도 감로해인을 모르니 나중에 어디에서 살 것인가?

그들은 너를 비웃고 나는 그들을 비웃

나니 최후의 승리자는 누구라고 말할 것인가? 천당을 내가 깨달아 알고 지옥을 안다고 항상 말하는 일평생(一平生) 수도한 사람도 북망산천(北望山川)을 면하지 못하는 때가 오리니 마음속 생명이 되는 영을 마귀(나라는 의식)가 삼켜 버리느니라. 지혜가 짧은 저 사람들은 을시구 절시구 이 좋은 세월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하니 무슨 수로 영생의 희망을 버려겠는가? 을시구(乙矢口)는 궁공을(弓弓乙乙=정도령)을 알아야 하며 절시구(節失口)는 때를 알아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십승(十勝) 정도령도 모르고 언제 출현하는 그 때도 모르고 놀다가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다.*

박명하 / 고서연구가 010-3912-5953
myunghpark23@naver.com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02-134421 예금주 : 이승우

승리신문은 독자님들의 정성어린 성금으로 만들어집니다
전국 각지에서 성금을 보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승리신문

1990.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윤봉수	편집인 박태선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람됨이 실제로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이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14679 홈페이지 www.victor.or.kr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985 FAX 032) 349-0202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